제목	중국 전체 농가의 41.7% 농민전업합작사 가입		
출처	• 中国农业新闻网(www.famer.com.cn)	게재일	2016. 1. 10

○ 2015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농민전업합작사 수는 147.9만 개로 증가하여 2014년 말 보다 15.5% 증가함. 농민전업합작사에 가입한 농가 수는 9,997만 호로 전체 농가의 41.7%를 차지함. 또한 각종 시범합작사 수도 13.5만 개를 초과하였음.

○ 농촌개혁의 추진과 농민 분화의 정도에 따라 농민들의 합작의 내용, 분야, 방식에 대한 요구가 다원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농민전업합작사의 형태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.

– 조직형태측면 : 토지도급경영권을 지분으로 출자하는 토지주식합작사와 집체 자산의 사용권을 계량화하여 집체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을 출자하는 공동체주식합작사가 크게 발전하였음.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주택, 창고 등을 지분으로 출자하여 부민합작사( )을 설립하는 등 토지, 자산, 기술 등 생산요소를 매개로 한 합작을 실현하고 있음.

– 합작사의 업태측면 :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동종의 농산물을 생산·판매하는 기초위에서 재배업과 축산업의 순환, 생산·가공·판매의 일체화, 전통식품(제품), 농촌관광 등 경영을 다양화하여 기술진보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효과를 얻음.

– 운영메커니즘측면 : 합작사가 신형 농업경영 주체와 전통 농가를 하나로 묶고, 생산과 서비스를 일체화함에 따라 점차 참여 주체와 이익 분배체계가 다양화되고 관리 및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운영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있음.

– 지원방식측면 : 일부지역에서 수혈식(血式) 자금 지원 방식에서 조혈식(造血式) 자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. 또 일부지역에서는 재정지원금이 개별 농민과 합작사에 직접 지원되도록 할 예정임. 이와 함께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합작사 간 연합과 합작을 추진하여 현재 연합합작사가 7,200개에 달함.